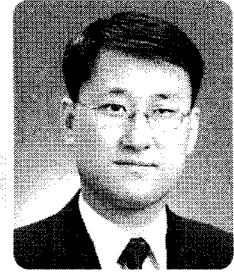


【특집 II : 구제역 종식 이후 재건 시스템】

구제역 종식 이후 양돈산업 재건 프로그램



최 성 현

대한양돈협회 정책·기획부 부장

1. 돼지 구제역 살처분 농가수와 두수?

지난해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올해 4월 5일 구제역 종식때 까지 양돈농가는 2,113농가 3,317천두가 살처분 되었다. 실로 국가 초유의 사태였다. 돼지에 대한 직접 보상금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월하순 부분 살처분 정책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83만두가 추가로 살처분되어, 약 410만두가 살처분될 상황이었다.

돼지 살처분 농가에는 종돈장 44개소 28만9천두, 인공수정 센타 9개소에 943두 등 종돈공급 조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구제역 상황이 종료되면서, 순종과 후보모돈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 때문에, 후보돈을 입식하고자 하는 농장은 F1 구입비용이 80~90만원에 이르는 등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후보모돈을 입식하는 4월부터 올해말까지 약 22만두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양돈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후보모돈 공급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 되었다.

후보모돈은 비살처분 농장과 살처분 농장의 수요가 더해, 올해 9개월 동안 46만두가 필요하여, 후보돈 구입을 미루거나, F2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돈산업 재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2010/2011년 돼지 살처분 농가수 및 두수

	부분살처분 (3/22)	전부살처분 (4/5)	계
농가수	558농가	1,555농가	2,113농가
살처분두수	3,317천두		3,317천두

* 지자체 : 11개 시도, 79개 시군

□ 재건 기간동안(2011.4월~2011년 12월말) F1 수요 추정

공급처	11.4월~12월 후보돈 공급가능두수	비고
종돈장(F1)	24만두)	후보돈 선발율 20% → 38% 상향해도 ⇒ 52%만 공급
비육돈(F2) 또는 수입돈	22만두 (순종돈 8천두+수입F1, 9천두)	비육돈 농장에서 선발 또는 자체선발 ⇒ 생산성 하락 우려
계	46만두	

주1) 4월 현재 국내 순종돈(♀)45,000두 추정×연간 19두×선발율38%×잔여기간 3/4

2. 양돈재건 프로그램 내용

2-1) 후보돈 및 순종돈 공급 프로그램

가. 순종돈 MMA 물량 확대(1,850두→8,000두)

올해 순종돈에 대한 MMA 물량을 1,850두에서 5천두로 상향 조정하였고, 수입두수의 증가에 따라 올해말 까지 8,000두로 재조정하여 종돈장에서 순종돈 확보를 용이하게 하였다. 올해 10월 5일까지 4,160두가 수입되어 올해 말까지는 8천두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나. F1 수입 무관세 허용(3만1천두까지)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에 따라 일시적인 후보모돈 수요로 F1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국내 비육돈가는 상승하여, 돈가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F1 가격도 90만원대에 이르게 되어, 수입 F1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입 F1은 관세혜택이 없었지만, 양돈 재건차원에서 무관세(관세18%)가 3만1천두까지 허용되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돼지가격이 하락하면서, F1 수입은 9천두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검역 사전신고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정부는 돼지 수입을 위해 사전에 신고하는 기간을 1개월 前에서 2개월 前에 신고하여 검역장 확보조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돼지 결핵균 검사시기는 선적전 60

일에서 30일전으로 조정하였다. 결핵균이 돼지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음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검역장에서는 검역장 시설을 풀(Full)가동하기 때문에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검역회사 별로 수입회사를 배정하여, 올인 올아웃 체제로 검역을 진행하여 국가 방역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되었다.

검역장 시설을 초과하는 종돈수입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한시적 민간 검역 시행장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마사 및 우사, 사슴사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역장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있다.

2-2) 국내종돈 적정가격 거래 캠페인 전개

- 비발생농가는 4월전 입식, 이후는 입식 자제 요청

재건에 따른 수요의 일시적 폭발로 국내 종돈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었다. 본회의 양돈산업 재건대책위원회와 이사회에서는 “종돈 적정가격 거래 캠페인”을 3월 24일부터 전개하였다. 후보돈(F1)의 적정 거래가격은 비육돈가격+20~25만원, F2 비육돈선발 후보돈은 비육돈 가격+10만원 이하로 거래하도록 권장 하였다.

F2 선발은 F1 선발대비, 생산성 하락, 질병 문제 등의 경제가치를 감안하면, 비육돈 가격에 10만원선 까지만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홍보하였고, F2 선발 후보돈은 산자수 하락을 감안하여 2산까지만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발생 농장은 살처분 농장의



후보돈 입식을 돕기 위해 자체선발하여 사용하도록 홍보하였다.

2-3) 살처분 농가 재입식을 위한 청소·소독 교육

- 3월 21일~4월 8일 24개 지역에서 살처분 농가 교육

살처분 농가는 재입식을 위하여 방역시설 점검과 분뇨 등 오염물질 청소상태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양돈 재건 프로그램 차원에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24개 지역에서 1,952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청소·소독 교육을 실시하였다.

재입식 농가를 위해 MSY 22두 기반조성 교육을 재건 프로그램 차원에서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등 7개 권역에서 실시하였다.



▲ 재입식 농가 질병 청정화 프로그램 교육

교육 내용에는 재입식 농가의 방역필수 보완사항(격리사 운용)과 출하시점 대비 추정치, 투자비 대비 손익계산, 음,PRRS 청정화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다.



▲ 동두천에서 농가 재입식을 위한 청소·소독 교육

2-4) 재입식농가 MSY 22두 기반 조성 교육 - 8월 16일~8월 25일 7개 권역 재입식 농가교육

재입식 농가는 모든 중심으로 재입식이 이루어짐으로, 모돈만을 상대로 집중 관리를 하여 특정 질병의 청정화 기반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음, PRRS 등에 대해서는 자돈과 비육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돈 관리를 통해 청정화를 이룰 수 있다.

2-5) 살처분 농가 세제 개선 추진 등

살처분 농가는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입식비용이 보상금에 대한 비용상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을 통해 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양돈장 재고자산을 반영하지 않는 농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병헌 의원은 이번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비과세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상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세금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2-6) 재입식자금 지원

살처분 농가는 후보돈을 비롯하여 가축입식 자금을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된다. 당초 한도금액은 살처분 보상비 이내에서 이루어 졌으나, 선진화 방안에서 3억원 한도로 제한되어 집행되고 있다.

3. 언제쯤 재건이 완료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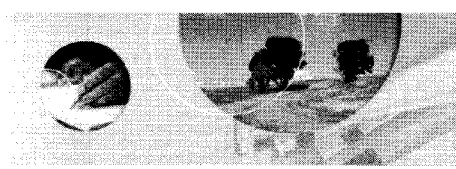
후보모돈 입식후 1년 6개월~1년 8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출하가 가능하다. 2010년도 도축두수는 1,462만두 였다. 모돈 두수는 97만두 내외였다. 구제역 발생전 두수로 재건되기 위해서는 2012년 10월 이후가 되어야 구제역 발생전 사육두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농가에서 입식을 미루는 농가들이 있어, 구제역 발생전 사육두수는 이보다 늦어질수도 있다고 본다.

□ 정부의 살처분 농가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대 책	지급시기
살 처 분 농 가	○ 살처분 농가에게 해당 가축시세의 100% 지급(국비 100%) ○ 위험지역내(3km) 원유 폐기 자금 지원(국비100%) - 집유주체별 우선 지급 후 사후정산	살처분 후,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 선지급
	○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한선 1,400만원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융자 100%) - 농가별 3억원 한도 내에서 입식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기 타 지 원 방 안	○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사료구매자금이자보전 상환기간 연장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 피해농가 자녀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 소득세공제 등	○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 파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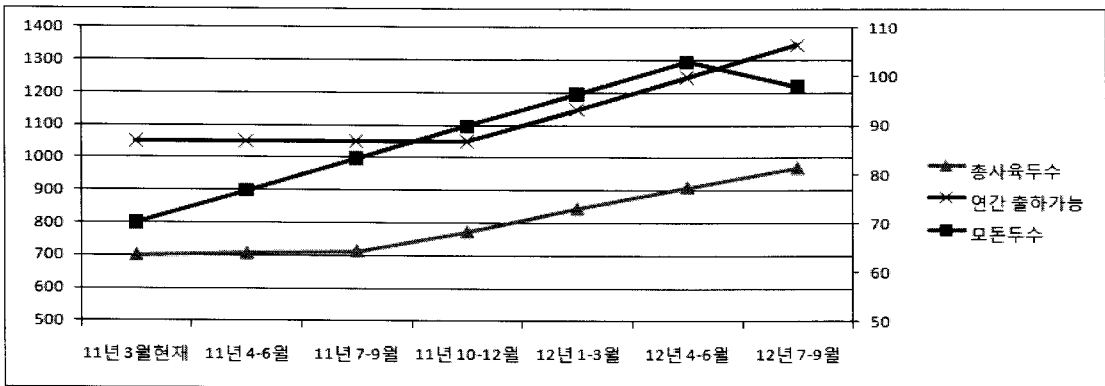
□ 살처분 농장에 분기별로 20%씩 입식시 사육두수 예측(본회 재건위원회)

(단위 : 만두)

	'11년 3월현재	'11년 4-6월	'11년 7-9월	'11년 10-12월	'12년 1-3월	'12년 4-6월	'12년 7-9월
살처분 농장의 후보돈 입식(33만두)		20% (6.6만두)	20% (6.6만두)	20% (6.6만두)	20% (6.6만두)	20% (6.6만두)	
모돈두수(만두)	70	76.6	83.2	89.8	96.4	103	98
총사육두수(만두)	700	706	713	773	845	911	971
연간 출하가능(만두)	1,050	1,050	1,050	1,050	1,149	1,248	1,347

※ '09년, 10년 도축두수 각각 1,392만두, 1,462만두

※ '09년, 10년 도축두수 각각 1,392만두, 1,462만두



□ 9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통계청)

구분	2010년	2011년		
		3월	6월	9월
모돈수(만두)	97.6	73.2	79.3	83.5
총마리수(만두)	988	703	733	778
가구수(천호)	7.3	5.7	6.0	6.2

4. 맺는말

- 재건은 빠르게, 방역은 철저하게

돼지 330만두 살처분 두수를 재건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다소 약했다고 본다. 정부는 구제역 재발방지와 방역에 관심을 가졌고, 재입식농가에 대한 지도와 교육 등은 다소 부족했다. 보상금 문제와 매몰지 관리

등 환경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양돈업 재건은 사료산업에서부터 육가공, 동물약품, 축산기자재업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2010년 양돈산업의 매출액이 5조3천억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양돈산업 재건은 빠르게, 방역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